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헤엄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헤엄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사람이나 물고기 따위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

요약 연대표

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해음						
해음						
해음						
헤엄						
헤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사람이나 물고기 따위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

🕒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 수록 용례

9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헤엄'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사람이나 물고기 따위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

☞ 헤엄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헤엄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헤움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헤움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헤음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헤엄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헤엄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5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헤움

16세기17세기

- 해움

18세기

- 해음

18세기

- 해엄

19세기20세기현재

- 해염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해움, 해움, 해음, 해엄, 해염

↳ 해엄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해엄’의 옛말인 ‘해움’은 16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해움’은 물속에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를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를 뜻하는 동사 ‘헤-’와 명사형 어미 ‘-움’이 결합한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움’이 ‘움’이 된 것은 제1음절의 ‘헤’의 영향으로 반모음 ‘ㅣ’[j]가 추가된 결과이다.

↳ 말의 구성과 어원

18세기에 나타나는 ‘해움’은 ‘헤-’에 ‘-움’ 대신 ‘-움’이 결합한 것이다. ‘해음’은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19세기에 ‘헤엄’ 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으’ 가 ‘어’로 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ㅂ 말의 구성과 어원

단어로는 20세기에 나타나지만 합성어의 한 부분으로는 19세기부터 쓰이는 ‘헤엄’은 제1음절과 제2음절의 모음 사이에 반모음 ‘[]’ [j]가 첨가된 것이다.

📖 문헌 속의 헤엄

전체 용례 9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6세기 해음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해음

📖 출처 1527 훈몽자회 중:1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游 해음 ㄴㄹ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527 훈몽자회 중:1ㄴ

용례 02

66 문헌 용례

泗 해음 ㄴㄹ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7세기 해음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해음

출처 1613 훈몽자회 국중도본 중:2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𪛗 해음 추 □므즈밋미 游 해음 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세기 해음, 해음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해음, 해음

출처 1777 소아론신석 11ㄱ

용례 04

66 문헌 용례

곤이와 기러기는 발이 너브모로 해음을 잘하고 벽국이는 목이 길모로 우름이 크니라.

💡 현대어 풀이

고니와 기러기는 발이 넓으므로 해음을 잘하고 빼꾸기는 목이 길므로 울음이 크니라.

출처 1780년경 왜어유해 하:19ㄱ

용례 05

66 문헌 용례

𪛗 해음 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해음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해음

출처 1884 정몽유어 23ㄱ

용례 06

66 문헌 용례

𪛗 해음 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해염, 해염

출처 1908 보감 3:41 ㄱ

용례 07

66 문헌 용례

비에 오를 수도 업고 해염으로 바다를 건널 수도 업스면 선주의게 이결하여 그저 공히 시러 주기를 청구할 밋기 수 업거늘.

ㄷ 현대어 풀이

배에 오를 수도 없고 해염으로 바다를 건널 수도 없으면 선주에게 애걸하여 그저 공히 실어 주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거늘.

출처 1913 세검정 65

용례 08

66 문헌 용례

물 해염을 칠 줄 모르는 소름 갓트면 가련이 어복(魚腹) 장수를 지냈스런마는 리 상원은 수십년을 물에서 생활한 터이라.

ㄷ 현대어 풀이

물 해염을 칠 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가련히 어복 장사를 지냈으려면 이 생원은 수십년을 물에서 생활한 터이라.

출처 1924 동아일보 6월18일 2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원래 해염도 모르는 터이라 사랑하는 아우를 붓잡기는 하얏스나.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헤엄의 보충 설명

16세기 문헌에서 ‘헤움’과 함께 ‘헤움하다’가 함께 확인된다.

헤엄 관련 낱말

헤다

헤엄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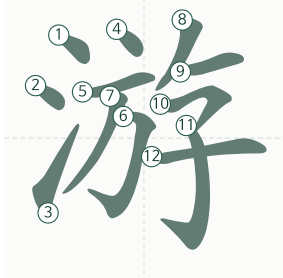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헤엄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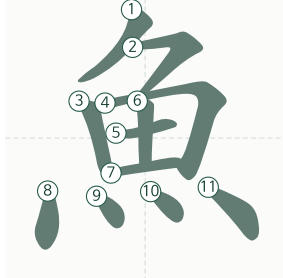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游 뜻·음 해엄칠 유
총 12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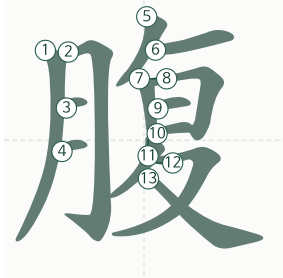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游/

魚 뜻·음 고기·물고기 어
총 11획 · 부수 魚

hanja.wordrow.kr/한자/魚/

腹 뜻·음 배복
총 13획 · 부수 肉

hanja.wordrow.kr/한자/腹/